

2001년도 고성장·저물가 지속 추진

금년은 새천년 들어와 다시 추진되는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하나인 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동 계획의 실시를 통해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과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이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2000년의 중국 경제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8.3%의 경제 성장률과 0.5%의 물가 수준을 시현하고, 대외 무역도 전년 대비 약32% 증가한 4,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데에는 무엇 보다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와 금융 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 등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 등 대외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대

금년도의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동안의 장기 호황에서 다소 후퇴하며 硬着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둘째, 경제 위기를 겪었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타이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경제가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석유가격 상승 등에 따라 세계 경제가 지난해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WTO 가입과 지난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 될 것 등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구조조정과 감원, 사회보장비의 수익자 부담 증가 등으로 내수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농산물 생산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촌지역 소득 증가 둔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셋째, 공산품 등의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되

면서 국내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WTO 가입에 따른 개방 확대
로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이다. 넷째, 서부대개발 계획이 금년
부터 실질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고성장·저물가 경제성장 지속 희망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국은 지난해 보다 다소 높은
8.1%(지난해 8.0%)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지킴으로써 고성장·저물가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금년도
경제 운용 방향과 정책 목표는 특히 대외적인 여건이 그리 밝지 않다고 보
고 정부지출 증대와 내수진작에 역점을 두고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도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과 정책 목표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
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확대로 대외수요 위축 대응

첫째, 지속적으로 내수확대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수요 위축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려야 했
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공급과잉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공급증대 위주의
경제정책을 탈피하여 수요확대에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① 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컴퓨터·자동차·주택 구입 열기를 확대시
키기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들 상품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거주 제한을 실시했던
정책도 폐지하여 외국인도 내국인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
망이다. ② 관광·체육·문화·교육 등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이들 부문에 대한
소비 확대를 촉진한다. ③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지급했던 곡식 등의 현물 지
급을 현금 지급으로 전환한다. ④ 공무원의 봉급을 금년에 다시 15% 인상함
으로서 공공부문을 비롯한 다른 부문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한다. 지난
해 중국은 공무원 봉급을 30% 인상한 바 있다. 한편,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785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이중에서 1인당 GDP
가 1,000달러 이상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4%인 3억 명에 달한다.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평균 GDP가 1,500달러 이상인 도시의 인구만도

약 8,5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실업자 증대와 더불어 의료비·양로비와 주택 임대 및 구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말미암아 소비수요는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중국 주요 도시별 GDP 수준(1999년 기준)

	北京	天津	上海	南京	廣州	杭州	濟南
1인당 GDP(US\$)	2,110	1,862	3,385	3,160	4,398	2,630	1,683
인구(만명)	1,250	910	1,313	537	685	616	558
	寧波	福州	大連	青島	廈門	深圳	계
1인당 GDP(US\$)	2,703	1,803	2,283	2,383	5,697	20,827	-
인구(만명)	538	583	545	703	129	120	8,487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0에 의거 작성

인프라 확충과 설비 갱신 위해 재정정책 팽창적 운용

둘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팽창 재정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지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는 서부대개발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다른 하나는 중요 기간산업의 설비 교체에 두고 있다. 먼저 서부개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철도·도로·공항 등 외에도 동부와 서부의 연계발전 강화를 위하여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공사(西氣東輸)¹⁾와 창장(長江)의 물을 북쪽 旱乾지역으로 수송하는 공사(南水北調)²⁾ 및 서남부지역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동부지역으로 송전하는 공사(西電東送) 등을 추진하여 서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지역의 주택건설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1) 新疆 타리무(塔里木)에서 上海에 이르는 총연장 4,176 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설공사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년 동안 456억 위안(55억 달러)를 투입하여 초기 가스 수송 능력이 연간 120억 m³에 달하도록 하고 최종 수송 능력이 200억 m³에 이르도록 할 계획임. 먼저 陝西·甘肅·寧夏지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현재 타리무지역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5,050억 m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2) 長江의 물을 북쪽 旱乾지역으로 수송하는 공사로 크게 東·中·西의 3개 수송로를 이용하게 됨. 현재 동쪽 수로만이 윤곽이 구체화되었으며 수송로는 長江—揚州—黃河—天津과 河北지역에 이르는 1,150 km 공사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전기전자 등 주요 기간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설비를 교체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와 적극적인 대출 실시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서부지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그리고 동부지역은 자동차와 주택 등의 구입을 통한 내수진작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표2> 중국 都·農間 소비수준 비교

	1978	1980	1985	1990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도·농소 비수준 ^주	2.9	2.8	2.3	3.0	3.3	3.5	3.4	3.1	3.1	3.3	3.5

주) 농촌 주민의 소비를 1이라고 봄.

자료: <표1>과 동일

농업부문과 농민 소득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셋째, 농업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사실상 금년도 최대 중점 추진 사업을 농업부문의 강화를 통한 농민 소득 증대에 두고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개방을 결정한 1978년의 도시 주민의 소비수준은 농촌 주민의 2.9배였고, 개혁을 농촌부터 착수한 1979년부터 농촌주민의 소비수준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 그 격차가 2.3배까지 줄었다. 그러나 1984년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의 주축을 도시와 공업부문으로 선회한 이후 도·농간의 소비격차는 오히려 계속 확대되어 최고 3.5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1999년 말 현재 중국 인구는 12억 5,909만 명으로 이 중 농촌 인구가 69.1%인 8억 7,017만 명이다. 도시 인구 3억 8,892만 명이 2배가 넘는 농촌 인구를 먹여 살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농촌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년 최대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부문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농민 소득 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① 농촌 경제 환경의 정비이다. 농민의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준조세를 개혁함과 동시에 농민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산업화를 지원한다. ③ 농산물의 품종개량을 통한 품질향상과 지역별 특화 농업을 추진한다. 주요 업종은 과일·채소·화훼·양식업과 농산물 가공업 등이다 ④ 鄉·鎮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산업을 병행 발전시키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

을 두는 것은 도시화이다. 농촌에 산재해 있는 향진기업을 소도시 중심으로 연결하여 농촌의 유희 노동력을 흡수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업을 발달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이미 국제시장 가격 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민 소득 수준의 향상도모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따라서 소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이를 통하여 농민 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만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병행하여 국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후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일부 기업, 특히 가전제품 생산기업이 아프리카 등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진출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다, 대외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후발 개도국에 시장개척형의 투자 실시를 통한 원·부자재의 공급으로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이들 후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 대외교역 규모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수시장 개방 확대에 총체적 대비 필요

중국 경제 운용방향과 정책이 금년에도 팽창 재정정책을 통한 국내투자 증대와 내수진작으로 대외수요 위축에 대응할 것인바, 우리기업들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각 기업의 상황을 감안, 우리 배후의 최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해 중국 시장 개척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순 저가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개척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에 공산품의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데다,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면서 내국기업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 저가상품의 경우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장 개척은 點에서 點으로의 보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소

비수준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임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한꺼번에 수 개지역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은 자칫 화를 부를 가능성이 많다. 이는 중국의 상관습에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형태의 판매 전략은 매출은 증가하되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는 경제협력자금과 연계한 진출을 고려함으로써 중국측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국내적으로 생산과 수입을 제한하는 업종에 대한 시장개척은 양국간에 무역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생산과 수입규모를 제한했던 업종은 석탄·야금·제당 등이었으나, 금년에는 이들 업종외에 추가로 석유화학과 건축자재를 포함시켰다. 야금은 철강부문, 석유화학은 정유부문, 건축자재는 시멘트와 유리부문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들 부문은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비교체를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계설비는 중국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다섯째,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중국의 반덤핑 제소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기업은 물론 관련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반덤핑에 제소되지 않도록 과당 경쟁 자제와 관련 협회의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이 1997년 반덤핑 관련 법규를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신문지·폴리에스테르 필름·냉연강판 등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정을 받는 등 주된 피제소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므로 금융 등의 서비스부문의 추가 진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에서 대중국 투자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금융부문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말 현재 중국에 설립된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과 법인이 각각 157개, 13개이고, 사무소는 무려 234개에 달한다. 이 중 上海와 深圳에서 위안화 업무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도 32개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사무소를 포함하여 10여개 정도 진출한데 불과한 실정이다.

일곱째, 중국이 비동맹국가로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 등의 경제협력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비동맹국가의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金周永】